

울산 '홍염 축구' 중심에는 '무서운 이적생' 이동준이 있다



프로축구 K리그1 개막 3경기에서 9골을 몰아친 울산 현대의 '홍염 축구' 중심에는 '무서운 이적생' 이동준(24)이 있다. 울산은 9일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3-1로 승리하며 개막 이후 3연승을 달렸다. 울산의 개막 3연승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최근 두 시즌 연속 전북 현대에 밀려 우승 문턱에서 좌

인천전서 1골 1도움... 윤빛가람 PK 유도까지 김지현·힌터제어 부상 이탈 속 원톱 '맹활약'

절했던 울산은 4년여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 홍명보 감독 지휘 아래 최고의 출발을 하며 16년 만의 리그 정상에 향해 순항했다. 특히 개막 3경기에서 무려 9골을 폭발시키며 시즌 초부터 막강 화력을 뽐내고 있다. 2위 전북과 3위 포항 스틸러스(이상 5골)보다 4골이나 많다. 개막을 앞두고 팬들에게 '홍염(洪炎) 축구(홍명보의 불꽃 축구)'를 약속했던 홍 감독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울산이 지난 시즌 '득점왕' 주니오와 비윤준, 이근호 등이 떠나고도 더

강력한 공격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건 새로운 이적생의 활약 덕분이다. 그중에서도 '무서운 이적생' 이동준이 가장 돋보인다. 이동준은 인천전에서 풀타임을 뛰며 페널티킥 결승골과 김인성의 쇄기골까지 도왔다. 윤빛가람의 페널티킥 선제골을 유도한 것도 이동준이었다. 부산에서 프로 데뷔한 이동준은 2019시즌 K리그2에서 13골 7도움을 올리며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유망주다. 지난해 1부리그에서도 5골 4도움을 기록했다. 홍 감독 부임 후 울산 유니폼을 입

은 이동준은 지난달 초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데뷔한 뒤 K리그1 개막전부터 펄펄 날고 있다. 강원FC와 개막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고, 인천전에서 1골 1도움을 추가하며 벌써 공격포인트 3개를 쌓았다. 단순한 수치를 넘어 팀에 대한 기여도는 그 이상이란 평가다. 심지어 인천과의 경기에선 원톱 자원이 김지현, 루카스 힌터제어의 부상 이탈로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맡아 홍 감독의 변형 전술을 이끌었다. 데뷔 후 주로 측면 자원으로 뛰던 이동준이 투톱을 본 적은 있지만, 최전방 원톱에 선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낯선 자리였지만, 이동준은 장기인 빠른 스피드로 상대 수비 뒤공간을 파고들며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특히 쇄기골 장면에선 이청용이 찢러준 로빙 패스를 컨트롤한 뒤 상대 골키퍼와 수비수들을 완벽히 따돌리는 크로스로 김인성의 득점을 도왔다. 비디오판독(VAR)으로 취소됐지만, 전반 5분 만에 나온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은 이동준의 올 시즌 활약을 기대케 하는 멋진 장면이기도 했다. 이동준은 원톱을 소화하기 위해 루이스 수아레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 제이미 바디(레스터시티) 등 세계적인 공격수들의 영상을 보고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빠른 스피드와 공간 침투로 수비라인을 깨는 데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다.

뉴스스

야구대표팀, 다음주 예비 엔트리 발표...추신수 포함되나

추신수,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태극마크 못 달아

도쿄올림픽에 나설 한국 야구대표팀의 예비 엔트리 명단이 곧 추려진다. KBO 관계자는 "다음주 초 기술위원회를 열어 1차 명단을 정할 예정이다. 다음주 주말 전까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문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지난해 3월 111명이 포함된 도쿄올림픽 사전 등록 명단을 정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열린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면서 엔트리 구성도 원점으로 돌아왔다. KBO 관계자는 "1년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엔트리도 다시 짜야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관심은 추신수(39·SSG 랜더스)에게 쏠리고 있다. 부산고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추신수는 지난해까지 16년간 미국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뛰었다. 시애틀 매리너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신시내티 레즈, 텍사스 레인저스 등을 거치며 통산 타율 0.275, 218홈런 782홈런의 성적을 냈다.

아시아 선수 최다 홈런·타점 기록을 작성하면서 2018년에는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달 SSG와 계약하며 KBO리그로 온 추신수는 올림픽 출전에 대해 "일단 잘해야 한다. 나갈 만한 성적이 되고, 실력이 돼야 한국 대표로 나가는 것이다"면서 "만일 성적이 좋고, 실력이 좋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추신수가 마지막으로 태극마크를 단 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이다. 당시 대회에서 펄펄 날았던 추신수는 금메달을 따내고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메이저리그 구단 혹은 사무국의 결정에 따르느라 국가대표 승선이 어려웠다. 이제 걸림돌은 모두 사라졌다. 손준 함께 KBO리그에 적응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국가대표 발탁도 이뤄질 수 있다. 마운드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1차 엔트리에 들었던 국가대표 에이스 양현종(텍사스 레인저스)은



미국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섰다. 올림픽 합류가 어려운 만큼 야구대표팀은 새 얼굴을 찾아야 한다. 도쿄 올림픽은 7월28일 일본 후쿠시마 아사마 구장에서 개막한다. 결승전은 8월7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치러진다. 한편, 일본은 9일 일본올림픽위원회(IOC)에 1차 엔트리185명을 제출했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 낮간 스포츠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다 리쿠텐 골든글러스에 복귀한 다나카 마사히로도 엔트리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일본 대표팀을 이끄는 이나바 야스노리 감독은 "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모두 명단에 넣었다. 프로야구 경기와 스태프 회의를 통해 최종 엔트리 24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류현진, 오늘 볼티모어전 대신 청백전 등판한다

원정경기 이동 대신 배려...투구 수 늘리며 컨디션 조율할 듯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5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터니든의 TD 볼파크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회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2이닝 1피안타(1피홈런) 1볼넷 1실점을 기록했다.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스프링캠프 두 번째 등판은 청백전으로 정해졌다. 토론토 구단은 10일(한국시간) "류

현진이 11일 청백전에 나선 뒤 화상 인터뷰를 한다"고 알렸다. 류현진은 지난 6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이닝 1피안타(1홈런) 2탈삼진 1볼넷 1실점을 기록했다. 최고 구속은 89.8마일(약 144.5km)까지 나왔고, 투구 수는 30개였다. 토론토는 11일 미국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의 에드 스미스 스타디움에서 볼티모어를 상대한다. 이미 한 차례 볼티모어전에 나섰던 류현진은 원정경기를 위해 이동하는 대신 청백전 등판이라는 배려를 받은 셈이다. 올해도 개막전 등판이 유력한 류현진은 청백전을 통해 투구 수를 늘리며 컨디션을 끌어 올릴 전망이다. 한편, 토론토는 11일 볼티모어와 경기에서 로스 스트리플링을 선발 마운더에 세운다.

뉴스스

"뭘해도 안 되네"...자력 우승 가능성 소멸 흥국생명

"뭘해도 안 되네"...자력 우승 가능성 소멸된 흥국생명



확도 내보고, 달래도 봤지만 경기력은 나아지지 않았다. 우승 문턱에서 빠진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은 "전체적으로 너무 기복이 심했던 경기"라고 곱씹었다. 흥국생명은 9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전에서 세트스코어 1-3(25-22 12-25 11-25 27-29)으로 패했다. 이제 우승 매직넘버를 세는 쪽은 흥국생명이 아닌 GS칼텍스다. 흥국생명(19승10패·승점 56)은

GS칼텍스(19승9패·승점 55)에 승점 1 앞선 1위를 유지했지만 자력 우승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됐다. 잔여 경기수가 GS칼텍스(2경기)보다 적은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흥국생명이 KGC인삼공사와의 최종전을 이기더라도 GS칼텍스가 IBK기업은행, KGC인삼공사를 모두 잡으면 우승은 GS칼텍스의 차지가 된다. 한 시즌 농사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1패이기에 더욱 뼈아팠다. 박 감독은 꼭 이겨야 한다는 부담과 체력

의 열세에서 패인을 찾았다. 박 감독은 "사실 뭘은 안 했지만 선수들에게는 되게 부담가는 경기였다. 거기다가 이틀 쉬고 나서니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첫 세트를 먼저 따낸 흥국생명은 2,3세트를 무기력하게 빼앗겼다. 두 세트 합계 점수는 '23'에 그쳤다. 1세트에서 보여준 조직적인 움직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박 감독은 "나도 선수 출신이지만, 안 뭘 때는 뭘 해도 잘 안 된다.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했다"면서 "승점 1,2를 쌓고 가야 했는데 넘지 못해 아쉽다"고 돌아봤다.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은 "흥국생명 선수들이 뻣뻣한 일정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 지쳐있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게 이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브를 세계 때려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래야 상대 공격 루트를 단순화할 수 있고, 블로킹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2세트부터 서브가 잘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상대 리시브 라인이 많이 흔들렸다"고 덧붙였다.

"도쿄올림픽 해외관중 없이 열기로...25일 정식 결정"

IOC, 각국 올림픽위원회·스폰서 관계자 관전 허용 요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이 도쿄 올림픽을 일반 해외 관중 없이 치르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조 이신분이 9일 보도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안전하게 대회를 개최하려면 국내 관중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성화 봉송이 시작되는 3월 25일까지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식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각

국의 올림픽위원회와 스폰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관전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에 해외 관중 100만여명을 수용해, 코로나19로 하락한 방위외국인을 회복하려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3일 조직위와 도쿄도, 일본 정부, 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회의를 열고 호텔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우선 원내에 해외 관중 수용 여부를 결정하

고 4월에 경기장에 입장하는 관중 수에 대해 판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트보다 높다고 알려진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백신 접종은 일부 국가에서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해외 관중을 허용하면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이라 우려가 커졌다.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감염이 확산되면 병상 확보 등 의료 제공 체제에 대한 부담도 커, 조직위 등은 IOC 측과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조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내일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차준환·유영·김예림 출격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번 대회 성적 합산 태극마크 가려



차준환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2일부터 14일까지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2020-2021 KB금융 전국 남녀 피겨스

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새 시즌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으로, 지난달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Championships 2021에 이어 후원사로 나선다. KB금융그룹은 피겨 꿈나무들을 위한 KB금융 피겨 꿈나무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11일과 12일에는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제56회 빙상인 추모 전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대회가 열린다. 차민규(의정부시청), 김보름(강원도청) 등이 출격한다.

뉴스스